

泰安 白華山の 場所性と 多層的 宗教 慣性

노재현* · 박주성** · 고여빈***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실 · ***우석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충남 태안읍에 소재한 백화산(白華山)은 백석으로 온통 뒤덮힌 그 형태가 기묘할 뿐 아니라(태안읍지편찬위원회, 1997) 자체가 성스러운 영기가 서린 산으로 추앙받아 왔다. 더군다나 백화산 태을암 내 입지한 태안마애삼존(국보 제307호)은 고대 마애불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最高)의 유적이기도 하다. 마애불과 그 주변 공간은 죽림정사(竹林精舍)나 기원정사(祈園精舍)와 함께 불교사원의 효시가 되는 유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태안마애삼존불은 한국 석굴 사원(石窟寺院) 조영의 시원적 형태(정재훈, 1996)를 갖는 공간이기도 하다. 백화산은 예배 대상 마애불이 존재함으로써 더욱 장구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어왔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함께 백화산 태을암 마애불 옆에는 ‘태을동천(太乙同天)’이란 각자(刻字) 바위와 돌바둑판[石局]도 발견된다. 또한 백화산에 산재된 다수의 바위글씨는 다양한 신앙과 문화가 내재된 공간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듯 백화산은 특이한 장소정체성과 문화경관적 특수성을 갖는 조망처이자 승경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연구는 조경분야는 물론 지리 및 종교 또는 민속학적인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태안마애삼존불에 국한한 몇몇 미술사적 연구(황수영, 1961; 문명대, 1995; 강우방, 1997; 김주성, 2003; 김성훈, 2010)가 있을 뿐이다. 현재 백화산에 나타난 여러 종교적 염원 및 예술적 활동의 흔적과 현존하는 자취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찾지 못한 빈약한 자료 및 기억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백화산이라는 현장에 잔존하는 인위적 흔적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옛 선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연지향적 문화행위와 신앙적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태안 백화산과 태을암 마애불사원의 장소성과 주변의 공간구성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이 지역 일대에 산재하거나 내재된 종교적 장소와 경관에 대한 표현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전통조경의 영역 확대에 일조하는 한편 태을암을 중심으로 한 백화산 일대에 내재된 다양한 층위의 종교적 장소 관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현재 남겨진 유적과 유물에 대한 사유를 통해 백화산을 통해

구현하고 사추하고자 했던 옛 선인들의 자취와 그 변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로서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지리학의 한 분야인 현상학적 역사지리학(historical geography)은 시간 흐름 속에서 장소 또는 경관의 형태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주력함으로써 장소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지역의 아름다움은 주로 경관으로 표출되며, 경관은 역으로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단서로 유효하다. 지나간 시대의 경관과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관여(關與)를 요하며 기억은 다시 경관을 통해 과거로 인도되며 이러한 과정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진행될 때 집단적 유대감과 장소정체성이 공고해진다(홍금수, 2009; 노재현, 2010).

본 연구는 문헌 및 자료분석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및 자료는 태안군 고지도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는 태을암 주변의 공간구성을 현장측량으로 도면화하고 각자의 크기와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백화산 내 바위 각자를 모두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 분석하여 각자 바위의 분포, 각자 주체 및 시기 그리고 내용과 서체 등을 분석하였다.

III. 백화산의 장소정체성

1. 관음신앙의 도량 백화산

백화산(白華山: 284m)은 금북정맥이 가야산을 거쳐 서해바다로 치닫다가 마지막으로 팔봉산과 망일산, 홍주산 등의 산줄기를 시샘하듯 뭉친 곳으로, 읍의 북쪽을 병풍처럼 막아주는 태안의 진산(鎭山)이다. 태안팔경의 제1경으로 기암괴석과 곰솔이 어우러져 있는, 백화산 중턱에 자리한 낙조봉에서 조망되는 일몰광경은 태안의 전래 팔경인 소성팔경(蘇城八景)의 제3경인 ‘태을낙조(太乙落照)’로 회자되고 있다. 멀리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백화산은 일찍부터 군사기지로 활용되어 왔고 현재도 북봉(北峰)은 군사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백화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암산이어서 석암에 반사된 모습이 달밤에 활짝 핀 목련 같기도 하고 희디흰 자작나무를 연상시킨다는 문명대(1995)의 표현은 매우 시적(詩的)이다. 그

러나 태안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중국, 일본과 해상활동의 전진 기지로 바다가 생활터전인 이곳 사람들은 극심한 자연재해에 빈번히 노출되어, 해난(海難) 주체의 성격이 강한 관음신앙이 성행한 곳이기도 하다.

백화산의 ‘백화’는 관음을 지칭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승발 원문’은 화엄 사상에 입각한 청정법신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면 「백화도량 발원문」은 관음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강우방(1997)은 황수영(1990)의 견해에 덧붙여 태안마애삼존불에서 주불이 관음이고 그것이 위치한 산 이름이 백화산임에 주목하여, 관음도장의 백제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산 일대를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 근거한 관음도장으로 주장한 바 있다.

2. 고지도와 고문헌으로 본 백화산

청구도에서는 주변 여러 섬들을 호위하고 펼쳐진 태안반도의 분기점의 길목에 입지한 백화산의 입지 특성이 잘 묘사되고 있으며 고성(古城)이라 별도의 표기가 강조되고 있다. 해동지도에서는 골산(骨山) 형태의 남봉과 북봉으로 이루어진 백화산을 중심으로 봉대(烽臺)라 기재되어 있으며 좌측으로 태을암(太乙庵)이 표기되어 있다. 지금도 두 봉우리 중 앞에 있는 것을 태일봉(太一峰)이라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천일봉(天一峰)으로 부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태안읍지편찬위원회, 1997). 1872년 태안지도에서는 백화산이 역시 우람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는 봉화대라 기재되어 있다. 또 그 밑으로는 어풍대(御風臺), 영사대(永思臺) 등이 표시되고 있으며 그 아래에 고성지(古城址)가 표시되어 있고 역시 좌측에 태을암을 그려놓고 있다. 두 지도 모두 동측으로는 흥주사(興住寺)의 위치를 강조하여 그려 놓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19, 태안현편)에는 백화산, 백화산성, 백화산봉수대 등과 함께 태일전이라는 사당이 백화산 옛 성터 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외는 별도로 태일전에 대한 기술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의성현(義城縣)의 고적조(古跡條)에서 목격된다. 즉 “태일전을 빙혈(氷穴) 옆에 있다. 매년 상원(上元)에 임금께서 향을 내리시어 제사를 지낸다. 성화(成化) 14년 무술(戊戌)에 충청도 태안군으로 옮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종 9년(1478년)에 의성현의 태일전을 태안군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태일전이란 명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일(太一)은 천지의 시조를 일컫는 것으로써 곧 하느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전(殿)은 대궐을 뜻하므로 태일전은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집’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일컫는 하느님이란 우리 나라의 국조(國祖)인 단군(檀君)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태일전은 곧 단군의 영정을 안치하는 곳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V. 태을암과 태을동천

백화산에서 가장 주목 받는 마애삼존불과 동일한 공간에는 ‘태을동천’이라 음각된 각자와 계류를 이용해 조성한 연못이 있다. 각자는 마애삼존불 전면 약 20m 전방에는 높이 7m의 암벽에 높이 3.5m 크기로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 각자되어 있으며 그 앞으로 계곡수가 흐르고 일소계(一笑溪)라고 쓰인 바위가 있다. 각자 내용으로 보아 19세기 후반 1881년 태안 태생 사회사업가인 김해 김씨 김규항(金圭恒)과 그 후손 김윤석이 쓴 글씨로 추정되며 ‘가락기원 1883년(고종 20년) 갑자’라 쓴 기년(紀年)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인 1923년 가을에 조영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태일전(太一殿)이란 도교에서 태일(太一)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건물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 태일(太一)이라 함은 중국철학에서 천지 만물이 나고 이루어진 근원 또는 우주의 본체를 이르는 말로서 태일성(太一星), 태을(太乙), 태을성(太乙星)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태을성(太乙星)이란 음양가에서, 북쪽 하늘에 있으면서 병란·재화·생사 따위를 맡아 다스린다고 하는 신령한 별을 의미한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또한 동천(洞天)이란 신선이 사는 장소로서, 명산의 동부(洞府) 가운데 있다. 지상에 있는 선계를 동천복지(洞天福地)라 하고 바다에 있는 것을 삼신산(三神山)이라 하는데 하늘에 있는 선계가 진정한 천상의 선계이다. 따라서 태을동천이란 ‘천지 만물이 나고 이루어진 근원 또는 우주의 본체를 이루는 신선이 사는 장소’라 규정할 수 있겠다.

마애불 동측으로 약 5m 떨어져 태을동천 각자 바위 사이에 계류가 흐른다. 계류는 일소계 상부로 인위적 보완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2단 폭포로 떨어진 뒤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만든 작은 연못인 일명 일소계에 모이게 된다. 일소계의 일부를 이루는 연못 속에는 가로, 세로 약 1.5m 쯤 되는 바위가 있고 계류



그림 1. 태을동천 옛 사진(1923년경)
자료: 金海金氏藏譜圖 表紙

와 연못에 걸쳐져 '일소계(一笑溪)'라 음각된 큰 자연석이 놓여 있다. 이후 폭 30cm의 도수로를 통해 낙하한 뒤 계곡을 따라 약 10m 정도 흐른 뒤 삼석각 서측 기단 아래에 다시 3단으로 폭포를 이루며 흐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 연못의 지안(池岸)은 콘크리트로 일부 변형되었으나 계류의 물을 끌어들이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압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을동천 마애각 바위 상부에는 바둑판이 조성되어 있다. 크기는 64cm 정방형으로 순장바둑판이 아닌 현대 화점 9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기원, 1996). 국내 야외 조성된 돌바둑판(석국(石局) 또는 암각(岩刻)바둑판)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물이자 문화로 돌바둑판이 발견된 곳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빼어난 경관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남치형, 2004; 이성구, 2009). 바둑이 옛 선비들의 풍류(風流)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계곡의 바위에 바둑판을 새겨 놓고 바둑을 즐기는 것은 자연과 합일 면에서도 더할 수 없는 풍류로 신선사상(神仙思想) 또는 도교적(道敎的) 색채가 강하게 난다는 점이다.

V. 결론

태안 백화산과 태을암 마애불사원의 장소성과 주변의 공간구성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이 지역 일대에 산재하거나 내재된 종교적 경관에 대한 표현방식 의미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전통조경의 영역 확대와 태일암을 중심으로 한 백화산 일대의 경관지리코드와 종교적 장소관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경관대상으로의 백화산의 입지성과 끝산으로의 특이성 못지않게 이 곳 백화산을 시점으로 조망되는 파노라믹한 경관성과 서해의 조망은 관음도량으로서의 내재된 의미는 상징적 의미체로서 백화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고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중요하게 읽혀지는 고성(古城)과 봉대(烽臺) 그리고 태을암은 조선 후기 백화산의 장소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존재하는 어룡대, 영사대 등이 표시는 이 산의 조망적 특성을 강조한 공간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단군의 영정의 태일전의 이안(移安)과 현재 남아있는 주초석의 흔적을 보아도 백화산이 갖는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태을암내 모셔진 백제시대 불상인 태안마애삼존불은 관음신앙으로의 도량으로서 백화산이 오랜 시간 이어져온 지역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을암 마애불 전면에 조성된 '태을동천' 각자를 중심으로 한 계류 및 연못공간인 일소계와 감모대 그리고 그 위에 펼친 암각바둑판 등은 조선 말기 백화산을 중심으로 지향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도가적 문화현상도 함께 발견된다.

이는 백화산이라는 종교적 장소 관성이 꾸준히 유전하면서 시대정신에 습합해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주변 지역에 여러 형태로 각자된 조선 말기 이후 유생들의 추님과 기념 그리고 자연동경을 위한 대(臺)는 도가적 삶의 지향은 현실을



그림 2. 백화산 장소정체성의 층위(Layer)

도피하여 은둔생활을 하면서 선계와 선인에 대한 갈망이나 동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가적(道家的) 삶의 구현은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자연의 공간을 선경으로 여기고 자신을 신선과 동일시 여겼다. 이렇듯 도가적 문화는 조선조 말기와 일제시대의 혼탁한 사회에서 선비들이나 민중이 설자리를 잃었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됨을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집중 조영된 각자에서도 확인된다. 백화관음도량으로의 장소성을 토대로 민족종교라 불리는 '단군숭배'의 공간성이 결합된 백화산은 조선 말기 동학혁명과 외세의 간섭 등 국내외적 위기와 혼란으로부터 안식을 찾기 위한 피난처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강점기 이후 이미 존재하고 있던 종교적 전통이 선택적으로 강조된 것은 이를 반증하며 일종의 선민주의적 인식의 형성은 백화산이라고 하는 장소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관음도량으로서의 백화산과 단군 영정을 봉안 하였던 태일전과 도교적 이상세계를 꿈꾸었던 태을동천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 중기 이후 백화산에 산재한 화강암 자연대(臺)에 새겨온 풍류와 선민의식은 현재의 백화산이 갖는 공간정체성이자 미래에도 지속될 종교적 장소 관성으로 각인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인용문헌

1. 강우방(1997) 태안백화산(泰安白華山) 마애관음삼존불고(磨崖觀音三尊佛敎): 백제 관음도장의 성립, 충남대 백제연구총서 5: 169-185.
2. 姜友邦(1995)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9) 의성 태일전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10-14.
4. 金海金氏藏譜岳圖 忠南瑞山郡泰安白華山.
5. 金海金氏族譜, 太乙洞天序, 三之二.
6. 김해경, 최기수(2007) 조선시대 인왕산 바위굴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2): 167-181.
7. 남치형(2004) 돌바둑판 연구의 필요성, 바둑학연구: 163-171.
8. 文明大(1995) 泰安 百濟磨崖三尊石佛의 新研究, 佛敎美術研究 2, 東國

大學校 佛敎美術文化財研究所.

9. 문명대(2003) 관불과 고졸미-삼국시대 불교조각사 연구. 예경.
10. 안계복(1989) 누각 및 정자 양식을 통한 한국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이달훈(1994) 태안 홍주사 만세루의 건축양식학적 고찰. 대전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8 5-12.
12. 정재훈(1996) 한국 전통의 원. 서울 도서출판 조경사. 510-512.
13. 조광환(2008) 소통하는 우리역사. 살림터. 199.
14. 최동희(2000) 천도교와 단군신화 -하늘신앙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2: 77-94.
15. 최진성(2004) 場所의 宗敎的 慣性: 全州市 僧岩山의 宗敎景觀을 中心으로. 문화 역사 지리 16(2): 53-65.
16. 충청남도(1990) 문화유적총람(사찰편). 679-689.
17. 태안읍지편찬위원회(1997) 태안읍지. (주)범신사.
18. 黃壽永(1962) 忠南泰安의 磨崖三尊佛像. 歷史學報 17·18輯, 歷史學會.